

셀트리온제약, 1120억원 투입 오창공장 신축

셀트리온제약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약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1120억원을 투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5월14일 공시했다.

신규공장 부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제2산업단지이며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88.32%에 해당한다.

투자기간은 2012년 4월30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이다.

<화학저널 2012/05/15>